

살펴 보기

: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지난 7월 필자는 월간산업보건에 '세대 간 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대 간의 소통에 관하여 글을 기재하였다. 필자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장 내 불통으로 인한 오해와 다툼에 대해 들어서 작성하게 되었다. 직장 내 소통의 문제는 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고민이었던 것 같다.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가 많았다'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받았다. 이번에는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이라는 '블라인드'와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blind '블라인드'



강성준

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최근 '블라인드'라고 들어 보았는가? 아래의 보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블라인드'는 무엇인가?

- 1번 햇빛을 가리는 도구로 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형태의 물건
- 2번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시행되는 부적절한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운영자가 차단하는 것
- 3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필자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블라인드는 3번! '블라인드 Blind - 직장인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블라인드'는 주식회사 팀블라인드에서 만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이다. 2013년 한국에 론칭하여 2015년에는 미국에도 론칭 성공 후 직장인들에게 사랑을 받아가며 글로벌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땅장 회항 사건 폭로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할 말 많은 직장인 여러분, 발언권을 얻으세요!"라

는 슬로건과 함께 <회사를 위한 건의도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던 직장인들을 위해 블라인드는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위한 건강한 의견을 제안해보세요! 블라인드에서 나이, 직급, 성별, 직종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블라인드 홈페이지 Q&A의 '정말 익명인가요?'라는 질문에 "블라인드 직원도, 대표의 머느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라며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회사, 업계, 직종별 현직자를 멘션하거나 1:1, 그룹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직, 커리어부터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까지 무엇이든 현직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직장인 재테크, 투자, 이직, 커리어는 물론 연애와 결혼, 취미 생활, 여행 등 대한민국 직장인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소통하는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블라인드지수(BIE)라고 대한민국 직장 행복도 조사를 통한 재직자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지수를 만들어 관심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블라인드는 현대판 대나무 숲의 역할과 또 하나의 이야기 쉼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익명성으로 무장한 ‘블라인드’에는 순기능만 존재하는 것일까?

‘블라인드’의 그 익명성은 최근의 사건사고 중심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땅콩회항 폭로 사건, 금호 아시아나 전회장의 미투 폭로로 갑질 논란 등을 알리는 순기능으로도 작용해왔다. 하지만 지나친 익명성을 무기로 KBS 직원의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든지”나 LH 직원의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등 논란이 일었다.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고, 회사에서는 블라인드를 감시하는 인력을 두는 곳까지 생기면서 인력을 낭비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왜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로 모이게 되었을까?

퇴근 이후의 행복을 찾기에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삶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생활이 보다 행복해지길 바란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장사라서, 부서 간의 간극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 회사에서 겪은 불합리함, 나 혼자만이라고 느껴져 망설였던 경험/ 이직 고민, 사회생활을 하며 생기는 공허함 등 변화의 필요성/ 동종업계, 산업군의 고충과 지식 교류, 다른 회사분위기 등’ 다양한 이야기로 공감과 폭넓은 이야기를 스스로없이 할 수 있는 장소로 모인 것이다.

이러한 직원들의 상황을 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라인드’를 소통의 창구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블라인드’의 존재를 알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한다. 신규 입사자 교육 자료에 기존 직원들이 블라인드에서 토론한 내용도 수록할 정도로 회사에 대한 궁금증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미리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며 이해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블라인드’의 장점을 활용한 소통은 어떨까?

꼭 ‘블라인드’를 통한 소통만이 아니고, 익명 게시판을 통한 의견 개시 같이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익명 게시판을 조직의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미덕인 임원과 베이비붐 세대가 보기에는 불평이나 불만으로 생각해, 집단의 결속을 해치는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주제를 거론하면 해결하기 힘들고, 비난받을 일이 생긴다고 오해하며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말하고 개선하는 곳과 실수를 퐁퐁 감추다 들켜버리는 곳 중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상처 난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 부위가 굼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직원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직은 이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신경 써야 회사가 정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없으면 오히려 단톡방과 같은 다른 곳에서의 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며 기업 입장에서는 내용 확인이 어려워져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게 ‘소통’은 마치 유행처럼 쓰인다. 과거의 ‘소통’과 지금의 ‘소통’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소통이 어려운 것은 세대 간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통 방법 중 하나인 ‘블라인드’는 직장인들의 소통 창구이자 서로 공감하고 위안을 삼으며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러한 앱이 없어도 소통이 되는 세상은 과연 올 수 있을까? ☺

참고문헌

- 나의 목소리로 시작되는 직장 생활의 변화 - 블라인드 Published by Teamblind
- 직장 의사소통 1, 2, 3탄 - 과거와 지금 - Published by Teamblind
- 나무위키 블라인드(앱)